

Title: The life and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study 5 Sermon Notes**The life and ministry of John: Part 2**

Scripture: Mark 1:1-8

Date preached: December 12th 2021

Scripture: Mark 1:1-8

1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2 As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face,
Who will prepare Your way before You.”**

3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

4 John came baptizing in the wilderness and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remission of sins. 5 Then all the land of Judea, and those from Jerusalem, went out to him and were all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confessing their sins.

6 Now John was clothed with camel’s hair and with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and he ate locusts and wild honey. 7 And he preached, saying, “There comes One after me who is mightier than I, whose sandal strap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loose. 8 I indeed baptized you with water, but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2 예언서에는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3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 고 쓰여 있다. 4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5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모두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몸을 구푸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Review

Last time we spoke about the early life of John and his first call to ministry. As I said last week only Luke tells us about John's birth. The other gospel writers introduce us to John as he begins his public ministry aged around 30.

So when it comes to his childhood and life as a young adult the bible tells us nothing. We are left then to speculate a little based on other things that the bible tells us. We know for instance that his parents Zacharias and Elizabeth were righteous godly people. We can assume therefore that they brought up their precious son to know and love the Lord. This would include teaching him God's Word, having him memorize scripture and being devoted to worship and prayer. Zacharias was a priest so it seems likely that John accompanied him when he went to the temple and that he was instructed in temple worship. It's also probable that John listened as the priests and rabbis spoke and taught. This would have provided him with an excellent understanding of scripture. I think we can confidently assert that John had a very good upbringing.

We should also not forget that God's hand was also upon John. He was blessed to have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from conception. This means in practical terms that throughout his life he was counselled, guided and instructed by God. We can see from the lifestyle choices he made that he was allowing the Spirit to guide him so that he would live a holy life.

We believe that all those who are truly in Christ are gifted with the Holy Spirit. He dwells within all those who have repented of their sins and put their faith in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Often however as believers we are guilty of quenching the Spirit's influence in our lives. We override Him and insist on doing what we want to do. We resist His desire to make us more Christlike. John I think was far better attuned to the Spirit in his life.

We don't know when his aged parents died. Probably this occurred when he was a young man. It seems likely that upon their deaths he went to live in the Judean wilderness or desert. As I said last time this was not as strange or extreme as it may seem to us today. Historically prophets often sought solitude in the wilderness. Sometimes this was their own decision and on other occasions it was through God leading them. I think in John's case his wilderness lifestyle reflected his desire to be away from the corruption, distractions and temptations of Jewish life. He had been raised to know that he had been set aside for the Lord. It is whilst he is in the wilderness that he receives God's call. This is what two of the gospel writers tell us.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John 1:6)

While Annas and Caiaphas were high priests, the word of God came to John the son of Zacharias in the wilderness. (Luke 3:2)

That God would call someone out as a messenger or herald for the messiah was not a surprise. It was expected. The prophets Isaiah and Malachi both foretold that this would occur. All four gospel writers make the point that John was the one they spoke of. He was the one God had chosen to break His 400 years of silence. This then was where we left the story last week. God had spoken to John and called him to begin his public ministry. Today we will look in more detail at the nature of John's ministry and what it was he taught.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의 초기 생애와 사역에 대한 그의 첫 번째 부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주에 말했듯이 누가는 요한의 탄생에 대해 알려줍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요한이 30 세 전후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삶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다른 것들에 근거하여 약간의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 소중한 아들을 키웠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기하게 하고,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성전에 갈 때 동행했고 성전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말하고 가르칠 때 요한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성경에 대한 훌륭한 이해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나는 John 이 매우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잉태 때부터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조언과 인도와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가 선택한 생활 방식에서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

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종종 신자로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성령의 영향력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고집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려는 그분의 욕망에 저항합니다. 존은 그의 삶에서 성령에 훨씬 더 잘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연로한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젊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죽자 그는 유대 광야나 광야로 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이상하거나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은 종종 광야에서 고독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이것은 그들 자신의 결정이었고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한의 경우에 그의 광야 생활 방식이 유대인 생활의 부패, 주의 산만 및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따로 떼어졌다는 것을 알기 위해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두 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누가복음 3:2)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메시아의 사자나 전령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상했다. 예언자 이사야와 말라기는 둘 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네 명의 복음서 기자는 모두 요한이 그들이 말한 사람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400 년 동안의 침묵을 깨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에 이야기를 남긴 곳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사역의 성격과 그것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Study plan

Today we will be looking at the life and ministry of John part 2.

Introduction

It is interesting to speculate on how John's public ministry began. Following God's call what exactly did John do? We might imagine a group of dusty travellers travelling through this region.

When out of nowhere comes this wild and eccentrically dressed man with a compelling message from God. How did they respond? Were they eager, puzzled or confused? Their confusion is perhaps understandable when we remember that it had been four centuries since God had spoken to His people. They had long forgotten what it was to have a prophet speaking the words of God. And yet there was something magnetic about John. His character, and his message of truth drew people to him. Luke tells us that **crowds** or a **multitude** came to hear and be baptized by him (Luke 3:7). Mark goes even farther and tells us that **all** the land of Judea went to John.

What was the appeal of John's message? Why did people find it so compelling? There may be a number of answers to this question. Perhaps people were desperate to hear a Word from God. Perhaps John was a dynamic and charismatic speaker. He certainly spoke with great boldness and conviction. Perhaps the very fact that he was strange and came out of the wilderness made him appealing. Maybe they thought that he was bringing something new and fresh to a religious experience that had become old and stale. Perhaps the people were genuinely convicted of their apathy towards God. John's words made them realise that they were not all they should be. Though they acted outwardly in a religious way their hearts really remained cold. All of these things may be valid. However the best answer I think is that the Holy Spirit was at work. The Holy Spirit was empowering John and also opening the hearts and minds of his hearers. No matter how wonderful

the words of a preacher may be, unless the Holy Spirit touches the hearer their heart will remain cold.

So John himself may have been appealing as a dynamic and powerful speaker. We also need to consider carefully what it was he was teaching. If we were to summarise John's message I think we could do so as follows.

1. One greater than I is coming (Christ/messiah)
2. Confess your sins, repent and be baptised as a sign that you are genuine.
3. Live a life that demonstrates that you are truly repentant and morally committed to pleasing God.

We will look in turn at these three components of John's teaching.

요한의 공적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측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요한은 정확히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 지역을 여행하는 먼지가 많은 여행자 그룹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거칠고 괴상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열망했습니까, 어리둥절했습니까, 아니면 혼란스러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지 4 세기가 지났음을 기억할 때 그들의 혼란은 아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John 에게는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품과 진리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그에게 이끌었습니다. 누가는 무리나 무리가 그에게 듣고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말한다(눅 3:7). 마가는 더 나아가서 온 유대 땅이 요한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메시지의 매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John 은 역동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가였을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담대하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낮설고 광야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매력적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가 낡고 진부한 종교적 경험에 새롭고 신선한 것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한의 말은 그들이 해야 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행동했지만 마음은 냉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대답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요한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한 청중의 마음과 생각을 여셨습니다. 설교자의 말이 아무리 훌륭해도 성령이 듣는 자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차갑습니다. 따라서 존 자신은 역동적이고 강력한 연설가로서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나보다 크신 이가 오심(그리스도/메시아)
2.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3.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요한의 가르침의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1 One greater than I is coming

It is very easy for gifted preachers or even bible teachers to become prideful. If they are not careful

they can get puffed up and believe that their popularity or appeal is down to their intelligence, charisma or power. One simple test for this is to note how often a preacher refers to themselves or tells stories or anecdotes in which they feature heavily. It is a common trait of preaching today. This is not to say a pastor should never talk about their lives or experiences, it is impossible not to. However the job of a pastor or bible teacher is to point people to Christ not themselves.

This was never an issue for the humble John. He knew and fully embraced his role as herald or messenger. As we said last week the herald in the ancient world went before the king or other dignitary. His sole job was to make sure that people knew who was coming. The herald was never there to promote himself. His only function was to point others towards the much more important person who followed. Listen to John's own words.

“There comes One after me who is mightier than I, whose sandal strap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loose. (Mark 1:7)

But John of course did not serve as a herald for an earthly king or ruler. He served the King of Kings. He came to challenge the hypocritical self-righteous thinking that dominated at that time. People had been taught to believe that as long as you appeared good and godly on the outside it did not matter about the state of your heart on the inside. We see this thinking challenged by Jesus in the sermon on the mount. Take for example the issue of adultery. The Pharisees taught that you committed adultery when you physically touched another person to whom you were not married. Jesus told them that the sin of adultery went way beyond just the physical act. You were guilty of adultery if you merely looked and had lustful thoughts about someone to whom you were not married.

John then challenged his hearers that it was time to change and abandon this foolish way of thinking. They must repent and turn back to God because the long awaited Messiah and His kingdom was at hand. So now John had their attention what must they do next. They needed to repent and be baptised.

재능 있는 설교자나 심지어 성경 교사들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쭐해지고 인기나 매력이 지성, 카리스마, 권력에 달려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 간단한 테스트는 설교자가 자신을 언급하거나 그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 또는 일화를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설교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그들의 삶이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나 성경 교사의 임무는 사람들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존에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령이나 메신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알고 완전히 수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말했듯이 고대 세계의 전령은 왕이나 다른 고관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유일한 임무는 사람들이 누가 오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럴드는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능은 뒤따르는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요한 자신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짚신 띠도 구부러 풀기 감당치 못하겠노라. (마가복음 1:7) 그러나 요한은 물론 지상의 왕이나 통치자의 전령으로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위선적인 독선적 사고에 도전하기 위해 왔다. 사람들은 당신이 겉으로 선하고 경건해 보이는 한 내면의 마음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도록 배웠습니다. 우리는 산상 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이 생각을 봅니다. 간음 문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결혼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만지면

간음을 범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죄가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서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고 음탕한 생각을 했다면 당신은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청중들에게 이 어리석은 생각을 바꾸고 버려야 할 때라고 도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야와 그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2 Confess your sins, repent and be baptised as a sign that you are genuine.

One of the key words to remember when it comes to John's message is the word **repent**. This is reflected in all the synoptic gospels.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Matthew 3:2)

John came baptizing in the wilderness and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remission of sins. (Mark 1:4)

And he went into all the region around the Jordan,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remission of sins. (Luke 3:3)

I spent some time in the last sermon talking about the word repent and its meaning. The Greek word for repent (*metanoō*) carries far more nuance than simply feeling sad or sorry about something you have done wrong. It means to “to change the mind and will.” It includes the idea of turning around and head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But not just in any direction, it meant turning from sin and turning towards God. So John's message to the people is as follows. If they turned from their rebellious pride and lived in proper obedience to God they would be ready for the Messiah and His kingdom. God's judgement was imminent so it was vital to make yourself right before God.

This was an essential teaching for God's people partly because of their misunderstanding about salvation. They believed that because they were God's chosen people that they did not need repentance.

John's message to them was clear. Your salvation does not come simply because you are a Jew. I suppose there are some parallels today with people who think they are saved because they are born into a good Christian family. Or that they are "good" people who go to church every Sunday. What saves us is our response to, and ongoing relationship with the Lord Jesus Christ.

How were the people to demonstrate that they understood this teaching that they were sinners and needed to repent? They were to be baptized. The symbolism of this would not be lost on John's Jewish hearers. Today we are familiar and comfortable with the concept of baptism in the life of a new believer. For the Jews of John's day however it would have been confusing. The Jews were familiar with ceremonial washings.

Before worship Jews would repeatedly wash their hands and feet in order to be ritually cleansed (Exo 30:20-21). But John's baptism was something different. It was a one time only cleansing act. What then did it mean?

The closest parallel, in the Jewish practices of that day, was a ritual not intended for native Israelites. It was the baptism of Gentile proselytes who wanted to leave paganism and be welcomed into Judaism. They would be immersed in water which symbolised that they were cleansed from their past sinful lives and born again into Judaism. Such a baptism was not necessary for Jews who were born into their faith. This was why John's call for baptism was so radical and challenging. In effect the Jews who were convicted by John's message and were seeking baptism were effectively saying that they were on the same level as Gentiles.

요한의 메시지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핵심 단어 중 하나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든 공관복음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3:2) 요한은 광야에 와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마가복음 1:4) 그리고 그는 요단강 사방에 두루 다니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누가복음 3:3) 지난 설교에서 회개라는 단어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메타노에오)는 단순히 자신이 잘못된 일에 대해 슬퍼하거나 미안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과 의지를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아이디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만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반역적인 교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위해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단순히 당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날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들은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며 회개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했습니까? 그들은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의 상징성은 요한의 유대인 청중들에게 손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 신자의 삶에서 침례라는 개념에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요한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적인 씻음에 익숙했습니다. 예배 전에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정결케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출 30:20-21).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달랐습니다. 단 한 번뿐인 정화 행위였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당시 유대인 관습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이스라엘 토착민을 위한 것이 아닌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교를 떠나 유대교로 환영받기를 원하는 이방인 개종자들의 침례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의 삶에서 깨끗함을 받고 유대교로 거듭난 것을 상징하는 물에 잠길 것입니다. 그러한 세례는 믿음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례에 대한 요한의 요청이 그토록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이유였습니다. 사실상 요한의 기별을 듣고 세례를 받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사실상 그들이 이방인과 같은 수준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John's baptism then served as a public declaration of repentance. It was the people affirming that they were sinners and deserved death. Following this declaration they would be baptised by John. Although John's baptism looked much like the baptisms we perform today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we baptise people today it symbolises their public declaration that they identify with the Lord Jesus Christ. They are acknowledging through their baptism that their salvation rests upon His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and that they are being born again into that new life.

John's baptism demonstrated a recognition of one's sin, a desire for spiritual cleansing, and a commitment to follow God's law in anticipation of the Messiah's arrival.

One thing however that both baptism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re an outward sign or symbol of an inner reality. John was baptising people who were confessing they were sinners but who wanted to repent and turn towards God. Today we baptise people who want to be reborn from their sinful past and who now identify with Christ. This then brings us on to the final component of

John's teaching. How we are to live following baptism.

당시 요한의 세례는 공개적으로 회개를 선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선언에 따라 그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침례와 매우 흡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그것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는 공개 선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침례를 통해 그들의 구원이 그분의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에 달려 있다는 것과 그들이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 영적 정결에 대한 열망,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예상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세례의 공통점은 그것이 내면의 실재에 대한 외적 표징 또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 많은 과거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하며 이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요한의 가르침의 마지막 구성요소로 이끕니다. 침례를 받은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 Live a life that demonstrates that you are truly repentant and morally committed to pleasing God

There is much for us to admire in John. We see in his life and his preaching a man who was bold, committed, passionate and at times honestly quite blunt. Sadly today we are often overly cautious about telling people the truth for fear of offending them. There are churches would you believe today that won't talk about sin for fear of driving people away. There are also churches that try to minimise or lessen sins impact on our lives. The message such churches promote seems to be that as a Christian you can basically continue living the life you led before encountering Christ. This is a very dangerous teaching and certainly not one that John would have embraced. True repentance means turning from your sinful lifestyle and re-orienting yourself towards God. It's not a partial, or half-hearted turn its a radical turn-about. We see this emphasised when a number of people approach John to ask him how they are to live a good and righteous life following baptism (Luke 10-14). To each John instructs them in practical ways how they are to live.

Basically his message can be summed up as follows;

Therefore bear fruits worthy of repentance (Matthew 3:8)

The baptism that they had received was just the first step. They were then to go forward living a life that was in keeping with their recognition that they were sinners before the eyes of a holy God. This meant, and continues to mean putting God and the things that please God first. It means living a life that is not selfish and self-centered. It means truly loving others and giving yourself sacrificially to them. It means to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and to recognise that all you have comes as a gift from God. It means to be content and satisfied with what you possess and not to be greedy or covetous for more. This was the life that John called his hearers to on the banks of the Jordan river. It is also the life that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calls us too today. Next time we will talk about John's interactions with Jesus.

요한에게서 우리가 감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과 설교에서 담대하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이며 때로는 정직하게 무뚝뚝한 사람을 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두려워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믿겠습니까? 우리 삶에 미치는 죄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줄이려고 노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을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가르침이며 확실히 요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악된 생활 방식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자신을 재정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분적이거나 반신반의가 아니라 급진적인 전환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후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요한에게 묻기 위해 요한에게 다가갔을 때 이것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눅 10-14). 요한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용적인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마 태복음 3:8) 그들이 받은 세례는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했으며 계속해서 의미합니다. 이 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에 만족하고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탐내거나 탐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청중들을 요단강 유역에서 부르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요한과 예수님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hree poi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1 We are to witness or point people to Christ

My mother asked me an interesting question when I told her I was preparing this study. Her question was why God had allowed John to die at such a young age. Of course, I do not know God's reasons. I only know that God always does what is right and best. I do know however that John completed his God ordained mission. God asked him to be the herald and the witness to the Christ. He perfectly carried out what God had told him to do.

Our mission might not be as exciting or as world changing as John's. But we too are called by God to witness or point people to Christ. It is why we are here and why God has placed us in our families, workplaces and other social settings. We are all weak in this area so let us pray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o make us bold and courageous like John.

내가 이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의 이유를 모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항상 옳은 일과 최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요한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전령과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John의 사명만큼 흥미롭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가리키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직장 및 기타 사회적 환경에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분야에 연약한 우리가 요한처럼 담대하고 담대하게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2 We are to challenge the status quo. Christians are called to a higher standard

How much easier life is if we go along and don't cause trouble. How much smoother things are if we agree with the world and don't object to the wickedness around us. John could have become rich and powerful just like many pastors today. He clearly possessed a charismatic power that attracted people. Of course he would have needed a slightly different message. He would have needed to water down his teaching. This was something John would never do. He would never just go along with what others said or modify his words so as not to offend. As Christians, we are expected to object and call out evil and wickedness. We are to do this even when we face the consequences of doing so.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함께 간다면 삶이 얼마나 더 쉬워질까요? 우리가 세상에 동의하고 우리 주변의 사악함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순조로운가? 요한은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처럼 부자가 될 수도 있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카리스마가 분명했다. 물론 그는 약간 다른 메시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존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르거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말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악과 사악함을 반대하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의 결과에 직면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3 Live the life you say you believe (don't be a hypocrite)

John was the real deal. He not only talked the talk, but he walked the walk. Most of us are at very best half hearted. How many of us really and truly live the Christian life we are called to. Are we all in for Christ, or are we at 80%, 60% or perhaps 20%. People can easily spot a phoney. They can easily spot someone who claims to be a Christian and then says and does the same things everyone else does. The word for such a person is a hypocrite. The word hypocrite comes from the Greek world of acting. It referred to an actor or stage performer who wore a mask on stage. They spoke through the mask and appeared as one thing but were something else beneath. Such are many Christians. They speak and act with their Christian mask on the outside but inside they are just like the world. Let us be aware of hypocrisy in our lives and try to live authentic God pleasing lives.

존은 진짜 거래였다. 그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걷기도 했다. 우리 대부분은 기껏해야 반신반의합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으로 진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80%, 60% 또는 아마도 20%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가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라는 단어는 그리스 연기 세계에서 유래했습니다. 무대에서 가면을 쓴 배우나 무대 연기자를 일컫는 말이다. 그들은 가면을 통해 말하고 하나의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아래에 있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가면을 쓰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세상과 같다. 우리 삶의 위선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시다.

